어떤 주제의 책인가요?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상황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기	책 속의 한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12월의 주제 <2023년	개인회원	개인회원	김진희	리틀 라이프 1, 2	시공사	한야 야나기하라	표지의 사진 같은 한 남자의 삶을 끝까지 숨 죽이며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소설. 다시 읽어볼 소설.
12월의 주제 <2023년	대구지부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이옥희	여름을 한 입 베어 물었더	문학동네	이꽃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일같이 채워져 있던 믹스커피는 누군가의 마음이었나 보다. 마르지 않고 새어 나오는 마음. 눈빛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다독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12월의 주제 <2023년	대구지부	해봄작은도서관	이수미	이솝우화	소울 메이트	이솝	성인을 위한 이솝우화/ 지은이 이솝 /소울 메이트/ 여행자와 진실한 여행자가 사막을 가다가 눈을 내리깔고 외롭게 있는 한 여자를 만났다. 그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녀가 대답했다 '진실입니다'. '무슨일로 마을을 떠나 사막에서 살고 있소?'라고 여행자가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옛날에는 거짓말쟁이가 아주 적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와 말을 해도 모두가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지요". 이솝은 2500년전의 사회상을 우화로 남겼는데 그때의 사회와 지금의 사회가 다르지 않다는거에 마음을 놓는것도 이상하고 이상하다고 의심하는것도 이상하고""" 인간사회이란 ㅉ ㅉ ㅉ
12월의 주제 <2023년	서울지부	숲속sh작은도서관	조슬기	눈부신 안부, 슬픔의 방문,	눈부신 안부(문학동네), 슬	백수린, 장일호, 송병기	<눈부신 안부, 백수린>단편의 내공도 꽤나 깊었던 백수린의 문장이 장편소설에서단단한 이야기의 힘과 결합되어 올해의 소설로 당당히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의 방문, 장일호>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장일호 기자의 기사는 지금 시대에 기자가 어떤 저널리즘을 가져야 하는지 지표로 삼을 만하다 싶을 정도로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 기자의 에세이는 그의 기사가 왜 다른가를 알게 해주는 프리퀄이자 진화하는 기자이자 작가의 현재 진행형을 엿볼 수 있는 더없이 훌륭한 작품이며, 에세이는 비문학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각자도사 사회, 송병기>상반기 사회과학 서적 중 가장 깊이 있게 읽은 책이며, 2023년 내내 이 책의 키워드들이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과학서적임에도 문장의 깔끔함과 문학적 깊이를 엿볼 수 있는 문장들이 읽는 내내 편안함과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던지는 메세지도 중요하지만 책은 무엇보다 소장가치가 충분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월의 주제 <2023년	서울지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민경아	스토너	알에이치코리아	존 윌리엄스	스토너의 인생을 보니 우리가 사는 인생은 불행한 것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할게 뻔한 인생을 또 열심히 사는게 인간이다. 그래서 희망도 꿈꾸게 된다.
12월의 주제 <2023년	서울지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박미현	악의	현대문학	히가시노 게이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라는 건 착각 위에 성립되는거야. 교사는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착각하고 학생은 뭔가를 배우고 있다고 착각하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행복하다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말하자면 교육놀이에 지나지 않는 거야.
12월의 주제 <2023년	서울지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윤숙	세상의 마지막기차역	모모	무라세 다케시	4가지 에피소드 모두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책이었다.
12월의 주제 <2023년	서울지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우미선	신곡	열린책들	단테알리기에리	우리의 인생 길의 한 중간에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었으니.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 얼마나 거칠고 황량하고 험한 숲이었는가 말하기 힘든 일이니 생각만해도 두려움이 되살아난다. 죽음 못지 않게 쓰라린 일이지만 거기에서 찾은 선을 이야기하기 위해 내가 거기서 본 다른 것들을 말하련다.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무척이나 잠에 취해 있어서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지 말할 수 없다 - 단테 1곡 2023년 나를 웃고, 울린 책입니다. 지옥편을 읽을 때는 나를 점검하였고, 천국편을 읽을 때는 신학과 철학을 찾아 헤매는 날이었지만. 힘들고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단테의 노래를 들으며 평안했습니다. 신곡을 집필한 1307년과 2023년의 세상은 너무나 닮았고, 여전히 인간들은 권모술수, 이기적, 아첨, 사랑으로 함정에 빠진다는거!! 우린 성인이 될 수 없으니까!! 이래서 신곡신고 하나봐요^^ 생각보다 빨리 읽혀지는 책입니다.
12월의 주제 <2023년	울산경주지부	황금똥 작은도서관	김희정	아버지의 해방일지	창비	정지아	울다가 웃다가!! 긍개 사램이제.. '빨치산의 딸'까지 읽게 만들었던 화제의 책. 작가와의 만남에서 당백한 인상을 주었던 정지아 작가님~ 우리들의 인생책.
12월의 주제 <2023년	울산경주지부	황금똥 작은도서관	박선영	전쟁같은 맛	글항아리	그레이스 M. 조	전쟁을 겪은 경험은 한 여성의 미각 속에도 뿌리 깊게 '전쟁같은 맛" 으로 박혀있었다.
12월의 주제 <2023년	울산경주지부	황금똥 작은도서관	정기순	범도	문학동네	방현석	그에게 승리는 싸움에서 승리한 그 날 단 하루, 남은 모든 날들이 패배의 나날이었다
12월의 주제 <2023년	충청지부	가재마을10단지작은도서관	민주현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	문학동네	심채경	비정규직 행성과학자 심채경 교수의 먹고사니즘과 과학자 사이의 정체성이 씁쓸하면서도 낭만적으로 보였던건 기다림의 고독함을 음악과 함께하며 소소하게 채워가는 무해함이지 않을까?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서울지부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	김원경	혼불	한길사	최명희	우리 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는 멋진 책입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서울지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노은정	그립고그립고그립다	프리즘(스노우폭스북스)	조병준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울산경주지부	로뎀작은도서관	윤지영	감사 나눔의 기적	비전북	김남용	당연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모든것이 감사에서 시작되고 더 나아집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울산경주지부	비발디작은도서관	정혜문	나로 향하는 길	책구름	김슬기	내가 미워했던 나를 끌어안았다. 그 누구보다 나를 귀하게 대접했다. / 생각지도 못한 배움과 발견/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울산경주지부	세린작은도서관	이영엽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마이클 센델	모든 일에 있어 다들 공정하다고 하는데 때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울산경주지부	세린작은도서관	곽둘림	천년의금서	세움	김진명	우리나라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됨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울산경주지부	세린작은도서관	곽둘림	소유냐 존재냐	범우사	에리히 프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책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울산경주지부	세린작은도서관	곽둘림	천년의 금서	세움	김진명	역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울산경주지부	세린작은도서관	곽둘림	흔한남매	미래엔아이세움	흔한남매	아이들이 좋아해서 나도 읽어보았어요 재미있었어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울산경주지부	세린작은도서관	곽둘림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	클레이하우스	황보름	마음이 따뜻해져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울산경주지부	세린작은도서관	박은희	잔혹한 어머니의 날	북로드	빌레 노이하우스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ㅏ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울산경주지부	울산구영리 황금똥 도서관	김은영	모두의 연수	비룡소	김려령	책 제목에서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울산경주지부	해보리작은도서관	조현희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문학동네	김혼비. 황선우	유머에 웃게 되고 다정한 위로에 눈물이 난다